

저소득 학생에 설명절 지원금 지급

전북교육청, 초·중·고·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1만8200여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교육급여 수급 가정 학생에게 가족 간 소통의 기회 제고를 통한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맞춤형 복지 강화 사업이다. 올해 1만9,500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23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과 추석에 4만 원씩, 생일이 있는 달에 생일 축하 지원금 4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1인당 연 3회, 총 12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내

초·중·고·특수·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교육급여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설 명절맞이 지원금은 1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 1만8200여 명의 학생에게 명절 전 지급된다. 1월 생일 축하 지원금도 대상이 되는 180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생일과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할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설을 맞아 보내 학생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0~21일 양일간 교직원 워크숍을 연 가운데,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방향 및 비전을 선포했다.

RISE 연계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비전 선포

전주비전대, 교직원 워크숍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0~21일 양일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방향 및 비전을 선포했다.

이근상 산학협력담당장은 전북특별자치도 8대 주력산업에 대한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역량을 진단한 후,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해 준비한 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주비전대는 지난 12월부터 대학구성원, 산업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학과장회의, 비전전략학대회의, 보직처장회의 등 여러 차례에 논의를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DX 융합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휴먼 라이프케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을 위한 RISE 체계로의 성공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 미래형 전문직업인 양성 및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RISE 체계 비전 및 목표

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병훈 총장은 "우리 대학 구성원이 대학의 미래 발전 및 성공적인 RISE체계의 전환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RISE사업의 주요 취지를 반영해 대학 Brand up, 산업 Grow up, 지역 Value up 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률 79.1%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거석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말 기준 서 교육감의 공약이행률은 79.1%로 지난해 목표율 64.9% 대비 121.9%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미래 77.2%, 책임 74.2%, 안전 91.9%, 자치 72.2%, 협력 86.9%, 공동체 78.3%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6대 분야 모두 지난해 목표율

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2년 반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176개 공약이행 세부사업 중 완료 71개, 정상 추진 104개, 미도래 1개 등이다.

원료 사업은 △교육지원청 내 학력지원센터 운영 △전북 에듀케이 지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 △학교 업무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공약관리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위

원으로 구성해 평가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누리집 보안으로 직관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이 쉽게 공약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도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4 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개시... 결산담당자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 교육 등 내용으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교육연수원에서 분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결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업무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기에 맞춰 결산업무 담당자들의 실

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결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 전달 △K-에듀파인 결산시스템 활용 교육 △결산서 작성 요령 안내 등 결산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4~5월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감사위원의 감사를 거쳐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승인 심사로 완료될 예정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결산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원 대상 '학생 주도성' 주제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분청 강당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IB 동계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 PYP 월드스쿨인 대구동덕초등학교 박소영 교감이 강사로 나서 '교사와 함께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전북교육 지표와 IB 프로그램과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교실 속

학생 주도성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한 후, 학생 주도적 학교 문화 나눔을 통한 교수-학습 설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월 IB 본부(IBO)와의 협력각서 체결 이후, 6월 첫 후보학교 승인을 시작으로 해를 넘긴 이달까지 PYP(초등학교) 3개교, MYP(중학교) 5개교, DP(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개교의 후보학교를 배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은 외국의 교육과정 도입이라는 오해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국가교육 과정으로 이뤄지는 교육"이라며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적 반도체 기업 취업 '화제'

전북대 김동명 박사, 브로드컴 개발 부서 연구원 선발



전북대학교 김동명 박사(통신 회로 및 시스템 설계 연구실, 지도교수 임동구)가 세계적 반도체 대기업인 브로드컴(Broadcom)에 취업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팰리스 기업인 브로드컴은 글로벌 ASIC(주문형 반도체) 대표 기업으로, 케이블 모뎀·셋톱박스·스위치·라우터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유선 인프라, WiFi 및 RF 칩셋 등의 무선통신 칩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기능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설계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2024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제치고 시가총

액 순위 8위를 차지한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이다.

김 박사는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며 CMOS RF 및 아날로그 송수신기 회로 설계 연구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분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저널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 Regular Papers』 및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II: Express Briefs』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제26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상 회로설계 분야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업적을 쌓았다.

김동명 박사는 "성과가 있기까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전북대학교와 전자공학부, 그리고 임동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 관련 전북교육가족 등에 송구 입장 "교육 대전환 정책 수행 최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의 항소심 선고를 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 교육감은 이어 전날 2심 판결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미 상고했고 반드시 대법원에서 꼭 실제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또한 앞으로도 후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진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



서거석 교육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나눔·기부문화 확산 솔선수범 노력"

서거석 교육감, 설 명절 맞아 전주시 서신동 노인복지관 방문

서거석 교육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노인복지관은 노래교실과 댄스스포츠 등 평생교육, 요가·건강교육 등 건강생활 사업, 노인일자리와 경로식당 등 사회참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모두가 함께 온정 가득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의

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전북교육청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쌀, 화장지, 누룽지, 김 등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은 22일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밤'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체험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호감도와 지역 이해도 증진을 통한 지역정주를 목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주)정석케미칼 견학으로 시작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완주군에 위치한 도내 우수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 관계자를 통한 기업 소개 및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로드맵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김제 모악랜드를 찾아 한국의 겨울 문화를 체험했다.

전주비전대 국제협력처 강진석 처장은 "지역의 위기가 시작된 지금, 외국인 유학생은 충분히 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단순히 한국어와 학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졸업 후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통한 자-산-학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숙박형 학습지원터(에비교원) 겨울방학 학력신장 캠프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는 20~22일, 22~24일 두 차례 걸쳐 운영된다.

에비교원들과 함께... 겨울방학 학력 신장 캠프

전주교대서 초등 4~6학년 희망 학생 대상... 24일까지 두차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숙박형 학습지원터(에비교원) 겨울방학 학력신장 캠프를 마련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4~6학년 중 희망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22일과 22~24일 두 차례에 걸쳐 2박3일씩 운영된다.

특히 전주교육대학교 1~3학년 재학생 40명이 캠프에 참여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 전략, 자기관리 기술 등을 포함한 학

습코칭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력 신장을 돕는다.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프로그램을 물론이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학력신장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단순한 학업 보충을 넘어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